

孝敬堂啓築文에 의한 坡平尹氏 庶尹公派 古宅의 原形 考察

A Study of Original Form of An Old House of Papyeong Yun's Family by an Ancient Document titled 'Hyogyeeongdang Gyechukmun'

안준호*
Ahn, Joon-Ho

이희준**
Lee, Hee-Jun

이달훈***
Lee, Dal-Hoon

Abstract

This study is to investigate the contents and status of documentary records based on "Hyogyeeongdang Gyechukmun" related to the Old House of Papyeong Yun's family. This house is located in Goegok-dong, Daejeon Metropolitan city, and is considered as one of the high-class houses in the mid-Chosun dynasty. The results might be summarized as follows: First, Hyogyeeongdang Gyechukmun was written by Yun Seom in 1675 (the 1st year of King Sukjong's reign), which is a kind of general drawing book containing a plane figure and a bird's-eye-view of the old house. It is an important historical record to identify the feature and characteristics of the high-class houses in those days. Second, Papyeong Yun's Old House was founded with five buildings including a shrine, women's quarters, Hyogyeeongdang, servants' quarters, and a warehouse. On the southern front, there used to be a pond. Third, the standard measure used to build the old house was about 310.00/尺(chuck). Chuck(尺) is the measuring unit of the Chosun Dynasty.

Keywords : Hyogyeeongdang Gyechukmun, Papyeong Yun's Old House, High-class houses in the mid-Chosun Dynasty

주요어 : 효경당계축문(孝敬堂啓築文), 과평윤씨고택, 조선중기 상류주택

I. 序 論

1. 연구의 목적

전통건축의 연구나 그 復原에 있어서 어려운 점은 現存하는 遺構가 적다는 것과 남아있는 유구들의 많은 부분이 시대가 흐르면서 창건당시의 규모나 형태 등에 많은 변형이 가해졌음에도 이것을 확인할 수 있는 造營관련 史料가 거의 없다는 것이다. 궁궐과 성곽 등의 경우는 營建儀軌를 중심으로 상당수의 기록들이 비교적 잘 남아 있으나 그 외의 건축물에 대한 자료는 거의 찾아지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학문적 특성상 史料發掘과 같은 분야를 다소 등한시 한 결과가 아닌가 생각되기도 한다. 이러한 까닭에 연구의 폭은 실증적 근거를 제시하지 못하고 남아 있는 유적의 현상만을 가지고 추정 복원하는 정도가 대부분이었다.¹⁾

주거건축을 비롯한 주거사적인 사료 역시 상황은 비슷한데 그나마 최근에 들어와서 조선시대 班家에 관한 자료²⁾를 토대로 몇 편의 연구결과가 발표되어 주목되어 왔다. 그런데, 이와 유사한 자료가 대전광역시 서구 괴곡동에 위치한 坡平尹氏 庶尹公派 古宅 보수공사³⁾과정에서 발견되었다.⁴⁾

1675년에 이 고택을 완성한 윤섬이 기록한 「孝敬堂啓築文」인데, 이 문서에는 건축주의 건축의도는 물론 그당시 고택내에 지어졌던 건축물의 종류와 위치, 그리고 평면도와 正面 俯瞰法⁵⁾ 유형의 도면 등이 수록되어 있다.

특히 이 「孝敬堂啓築文」은 「五美洞家圖」 등과 비교할 때 도면의 세련미는 다소 떨어지나 기록 연대가 상당히 앞설 뿐만 아니라 그 기록의 상세함도 부분적으로 뛰어나며, 사실적인 표현기법을 사용하고 있어 주거사적인 측면에서 매우 중요한 사료로 판단된다.

본 연구는 「孝敬堂啓築文」을 통해 그동안 남아 있는 모습을 바탕으로 거꾸로 추정만 해왔던 고택의 원형을 고찰한 뒤 이를 토대로 개략적인 復原案을 제시하며 아울러 그 결과를 조선중기 상류주택의 주거사적 특징을 고찰함에 있어 하나의 기준적인 자료로 제공코자 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1) 박익수, 구례 윤조루의 주택사 연구, 대한건축학회논문집 14권2호, 1998, p.195

2) 「全羅求禮五美洞家圖(1800년경)」와 「五美洞瓦家舊時全圖(1916)」

3) 대전광역시 서구에서 발주한 안채 지붕보수공사(2006시행)

4) 거주자가 제시하므로써 발견되었는데 사랑방 옆 고방에서 일제강점기에 발견했다고 하며, 고방벽에 선반식으로 책장을 설치, 보관했다고 함.

5) 정면을 중요시하면서 위에서 내려다 본 것처럼 표현하는 기법.(송인호, 옛 그림에서 읽는 건축, 건축문화 1997. 9. p.196)

*정회원(주저자), 대전대 박사과정 수료

**정회원, 대전대 건축학과 겸임교수

***정회원(교신저자), 대전대 건축학과 교수, 공학박사

2. 연구의 범위 및 방법

본 연구의 범위는 연구의 목적에서도 밝혔듯이 새로이 발견된 「孝敬堂啓築文」을 토대로 파평윤씨서운공파 고택의 원형고찰을 주목적으로 하므로, 연구의 범위를 계축문과 파평윤씨고택으로 한정한다.

연구방법으로는 우선 「孝敬堂啓築文」의 내용을 살펴본 후 유사 문헌과 그에 대한 연구사례를 수집·검토한다. 이후 실측도면 확인 및 현장실측 등을 거쳐 고택 현황과의 비교 검토를 통해 건물의 殘存, 또는 변경된 부분을 찾아내므로써 현상에 의한 추정고찰이 아닌, 문헌에 의한 창건대의 원형을 고찰해 본다. 아울러 「孝敬堂啓築文」의 내용으로도 확인할 수 없는 부분을 논리적으로 풀어내고 이러한 결과를 바탕으로 복원안을 제시하는 순으로 연구를 진행한다.

II. 本 論

1. 파평윤씨 고택 현황

대전광역시 서구 괴곡동 고리골⁶⁾에 위치한 坡平尹氏 庶尹公派 古宅은 윤섬이 자신의 祖父인 尹火翁⁷⁾의 묘 앞에 지은 것으로 알려져 왔다.

이 고택은 대전지역에 남아 있는 얼마 되지 않는 班家⁸⁾ 중의 하나인데 큰 장마로 뒷산 묘소 및 일부 건물들의 손실이 있었고, 여러 차례의 중수를 거치면서 안채를 제외한 다른 건물들의 규모가 줄어들었으며, 근래에는 화재로 인해 건물의 부분적인 燒失이 있었다는 이야기들이 口傳되어 왔다. 또한 이 고택이 묘소 앞에 위치하고 있다는 이유로 재실로 추정되기도 하는데, 이 역시 뚜렷한 근거 없이 전해지는 이야기로 보여지고 있다.⁹⁾

고택은 ‘永思堂’ 현판이 걸린 안채로 추정되는 ㄷ자형 건물과 그 전면에 위치한 ㄴ자형 건물, 그리고 두 칸 규모의 창고와 한 칸의 화장실 등 4동의 건물이 전체적으로 ㄷ자형으로 배치되어 있다. 남아 있는 부분만으로도 문화재적 가치를 인정받아 1992년 10월 28일에 대전광역시 문화재자료 제34호로 지정되었다.

현재 이 고택은 ㄷ자형 안채 건물만 사용하고 있는데, 대청을 중심으로 부엌과 접한 방을 안방과 옷방으로, 건넌방을 사랑방으로 각각 사용하고 있다. 안채 앞에 있는 ㄴ자형의 건물은 행랑채로 보여지는데, 남동측면의 끝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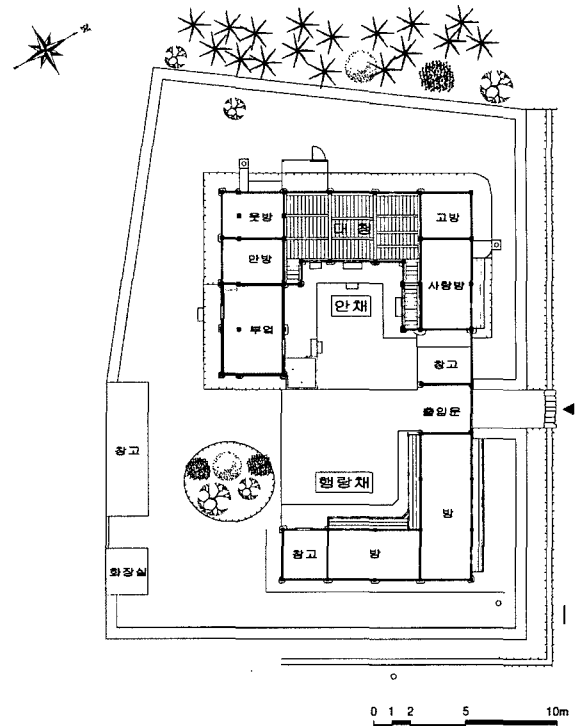


그림 1. 파평윤씨고택 현황배치도 (서흥기술건축사사무소, 지봉보수용 도면, 대전광역시 서구, 200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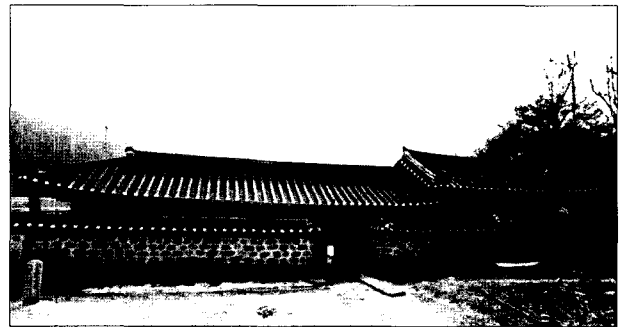


그림 2. 고택의 현재 주 출입구

(현재 창고)만 과거 鼎廚(부엌)로 사용되었던 공간이고 나머지는 모두 방으로 이루어져 있다.

집주인의 증언에 의하면 수십년전의 화재로 인해 鼎廚(부엌) 옆의 대문과 창고 두 칸이 타 버렸고, 이 불타버린 대문이 과거의 주 출입구였다고 하나¹⁰⁾ 지금은 그림 3에서와 같이 안채와 행랑채사이에 설치되어 있는 소문을 주 출입구로 이용하고 있다.

안채와 행랑채 두 건물 모두 북동쪽 외측벽에 쪽마루가 길게 설치되어 있어서 원래는 담 너머에 있었던 건물과의 물리적 또는 시각적인 연속성을 부여했던 것으로 추정해 볼 수 있는데, 현재는 담장으로 막혀있어 별다른 기

6) 마을지형이 고리(槐谷, 柳器)와 흡사하므로 고릿골이라 불렀고, 오래 묵은 느티나무가 있는 마을이기에 괴곡리라 부르게 되었다.(대전광역시, 대전지명지, 1994, p.650)

7) 윤흡(1580~1633). 조선중기 문관. 본관은 坡平. 30세에 司馬試를 마치고, 36에 되던 해 1615년에 利仁道 察訪에 임명. 이후 掌隸院 司評을 거쳐 형조 및 호조좌랑을 역임하고, 1626년에 漢城府 判官이 됨. 1633년 정월에 漢城府 庶尹이 되었으나 같은 해 2월에 병사, 괴곡동에 묻혔다.(대전광역시, 대전의 금석문, 1995, p.464)

8) 현재 대전에는 동춘고택, 안동권씨유회당종가, 송용역가옥, 파평윤씨서운공파고택, 송자고택 등의 班가가 남아 있다.

9) 윤흡이 터를 닦고 윤섬이 대대적인 증축을 이룬 이후, 중손이 계속 거주한 점으로 보아 재실로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된다.

10) 대문 배치와 관련, ‘대청을 피하는 자연스러운 배치기법’으로써 주기론적 유학사상이 작용하였던 것으로 추정하는 견해도 있었는데(구봉산자락의 삶터, 서구문화총서9, 서구문화원, 1999, p.80), 이 역시 사료의 부재에 따른 현상적 해석에 의한 결과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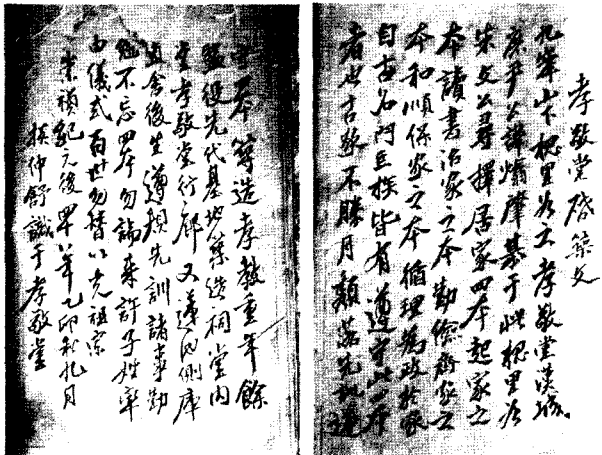


그림 3. 「효경당계축문」 원본 사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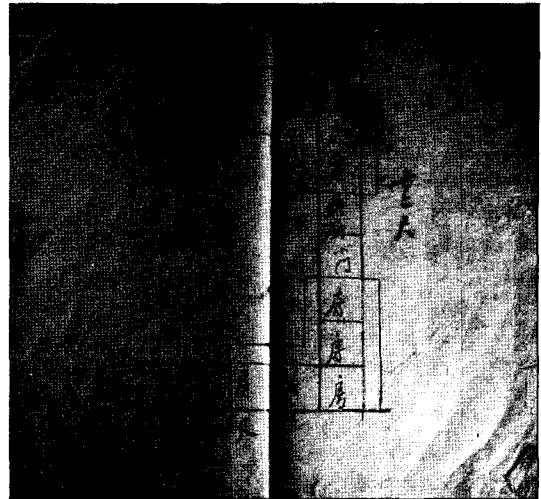


그림 4-1.

능을 하지 못하고 있다.

그 밖에는 한 칸 규모의 화장실과 두 칸 규모의 창고가 있으나, 화장실과 창고 모두 최근에 개축하였다.

2. 「孝敬堂啓築文」의 내용

「孝敬堂啓築文」은 건축가(혹은 건축주)의 건축의도와 도면 등이 함께 담겨진 일종의 조선시대 상류주택의 설계도서로서, 표지와 제목을 제외하면 문장 두 쪽 분량과 도면 6쪽으로 구성되어 있다.¹¹⁾

【 孝敬堂啓築文 全文】

孝敬堂啓築文

九峯山下槐里爲之孝敬堂 漢城庶尹公諱火翁肇基于此. 槐里爲朱文公尋擇居家四本 起家之本讀書 治家之本勤儉 齊家之本和順 保家之本純理 爲政於家 自古名門巨族 皆有遵守此四本者也 古家不勝月頽落 先訓遵守四本 築造孝敬 重年餘監役先代基地 築造祠堂·內堂·孝敬堂·行廊 又蓮池側庫直舍 後生遵規先訓 諸事勤勉不忘四本 勿論來許子姓率由儀式百世勿替 以光祖宗

崇禎紀元後四十八年乙卯秋九月 淡仲舒 識于孝敬堂

‘구부산 아래槐里(고리골)의孝敬堂은 한성서윤 윤흡이 이곳에서 도모한 곳이다.’¹²⁾라는 설명으로 시작되고 있어 이곳에 처음 터를 닦은 이, 즉 처음 건물을 세운 사람은 윤섭이 아니고 그의 조부인 윤흡이었음을 알 수 있다.¹³⁾

이와 관련된 내용은 문장의 중간부에도 있는데 ‘옛집이 달로 허물어져 지탱하지 못하고…中略… 효경당을 축조하기 위해 해를 거듭하여 선대의 터에서 공사를 하여 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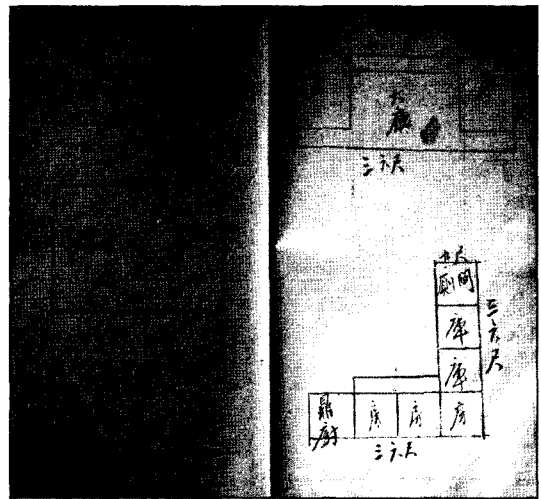


그림 4-2.

그림 4-3.

그림 4. 「효경당계축문」내의 평면도

당·내당·효경당·행랑을 축조하고 또 연못의 옆에 고직사를 세웠다.’¹⁴⁾라고 적고 있어 당초 할아버지가 지었던 건물이頽落하자 손자인 윤섭이改築하면서 일부 건물을增築하였으며, 이 기록에 의하면 적어도 윤섭의 대에는 고택 내에 5동의 건물과 연못이 있었음을 알 수 있다.

문장의 마지막은 ‘1675년(숙종 원년) 가을 9월에 자리를 펴고 효경당에서 기록하노라.’¹⁵⁾고 적고 있어 문헌 중간부분에 언급된 건축물들이 적어도 1675년 이전에 모두 지어졌음을 알 수 있다. 아울러 윤섭이 글을 썼다는 ‘효경당’은 적어도 남성공간이었을 것으로 추정된다.

또한 「효경당계축문」에는 이 고택내의 건물 규모와 실의 용도가 기록되어 있는 4쪽 분량의 평면도<그림 5>가 그려져 있는데, 비록單線으로 그려지긴 했지만 각 실의

11) 표지를 제외하고 16쪽으로 되어 있으며 이중 10쪽만 사용하였다. 한지에 먹으로 기록하였으며 앞뒤표지는 기름을 먹었다. (가로 21 cm×세로 35 cm)

12) 「九峯山下槐里爲之孝敬堂 漢城庶尹公諱火翁肇基于此」

13) 고택과 관련된 자료는 대부분 윤흡의 신도비에 의존했는데 흡이 이곳에 묻힌 사실만을 기록하였고 누가 건축을 했는가에 대한 내용은 없다.

14) 「古家不勝月頽落 …… 築造孝敬 重年餘監役先代基地 築造祠堂·內堂·孝敬堂·行廊又蓮池側庫直舍」

15) 「崇禎紀元後四十八年乙卯秋九月 仲舒 識于孝敬堂」

용도와 칸의 크기까지 자세하게 기록되어 있다.

그림 4-1은 현재 남아 있는 ㄷ자형건물(‘가’동)과 ㄷ자형의 건물(‘나’동)이, 그림 4-2에는 方形의 연못과 현존하지 않는 一자형 평면의 ‘마’동이 있고 그림 4-3에도 역시 현존하지 않는 2동의 건물이 상세하게 그려져 있다.

평면도를 통해 살펴본 각 건물의 규모와 공간구성은 다음과 같다. 그림 4-1의 ㄷ자형 안채에서 대청을 중심으로 좌우측의 방의 길이는 폭 46尺에 좌측으로부터 방(10尺)-대청(27尺)-방·고방(9尺)의 순서로 되어 있는데, 방 앞으로는 모두 쪽마루가 설치되어 있다. 우측 날개채는 전체 길이 32尺에 방과 정주로 구성되어 있으며, 보칸은 8尺, 도리칸은 10尺으로 되어 있다. 좌측 날개채는 서고-방-방-정주로 되어 있으며, 도리칸은 9尺이다. 보칸에 대한 별도의 기록은 없지만 사랑채로 추정하는 ㄷ자형 건물과 연결된 부분을 합쳐 8칸에 72尺으로 기록하고 있어 대략 9尺으로 추정된다.

ㄷ자형 평면과 마주한 ㄷ자형의 건물은 우선 대문간이 있는 부분의 경우 고방-대문-정주-방 3칸으로 공간이 구성되어 있는데, 전체폭은 54尺으로 되어 있어 평균 9尺임을 알 수 있고, ㄷ자형 건물과 연결되는 부분은 방 3칸과 소문 1칸으로 되어 있는데, 역시 각 칸 모두 9尺으로 되어 있다. 또한 안채와 마찬가지로 방 앞과 뒤로 모두 쪽마루를 드리우고 있다.

그림 4-2에서는 방형의 연못과 그 위에 측간 1칸과 고방 3칸으로 구성된 1동의 건물이 그려져 있는데, 이 건물은 그림 6의 부감도에 표현되어 있는 ‘마’동 건물로 추정되나 명확하지는 않으며¹⁶⁾, 보칸과 도리칸이 모두 9자씩으로 되어 있다.

2동의 건물이 그려 있는 그림 4-3에서는 우측의 상단에 그려진 전면 4칸 측면 2칸의 재실형¹⁷⁾ 건물은 좌·우측에 대칭적으로 방을 두고 중앙에 두 칸 규모로 대청을 두었으며, 방의 전면으로는 모두 뒷마루를 두었는데, 보칸과 도리칸 모두 9尺로 구성되어 있다.

이 건물의 앞쪽에 있는 ㄷ자형의 건물은 모두 7칸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방 3칸과 고방 2칸, 그리고 양단간에 정주와 측간이 각 1칸씩 붙어 있으며, 보칸은 9尺이고 도리칸은 9尺씩 모두 36尺으로 되어 있다.

3. 「부감도」의 내용

고택내 창건대 건물들의 전반적인 배치나 그 형태는 그림 5와 같이 효경당계축문 내의 두 쪽 분량의 부감도에 자세하게 표현되어 있다.

五美洞家圖에서는 보이는 것과 알고 있는 것을 한꺼번에 표현하기 위해 풀라주와 같은 기법¹⁸⁾을 사용한 반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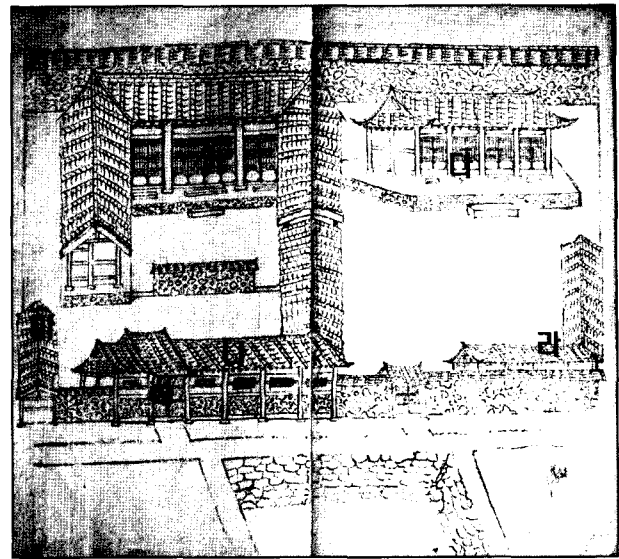


그림 5. 효경당계축문 내의 부감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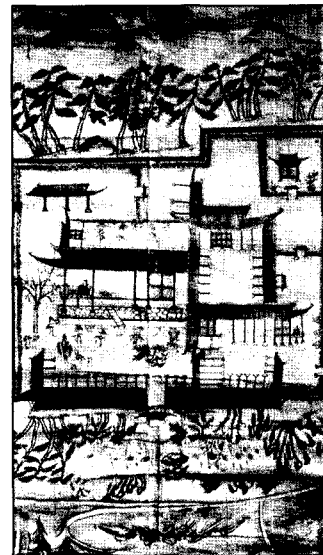


그림 6. 오미동가도

효경당계축문에 그려져 있는 부감도는 극히 일부 풀라주 기법이 보이는 하지만 거의 正面 俯瞰構圖에 가까운 기법으로 그려졌다.

부감도에는 건물의 형태는 물론 닻돌과 기단, 문살과 문고리, 그리고 담장의 석재 및 기와까지 비교적 상세하게 묘사되어 있는데, 전통건축물을 부감도로 표현할 경우 내부공간의 표현이 어려운 점을 감안하여 지붕 처마를 짧게 묘사함으로써 건물에 에워싸인 공간을 비교적 잘 표현하고 있다.

전체적으로 평면도를 토대로 하여 부감도가 그려진 것으로 보여지나, 평면도에는 없는 안채와 문간채 사이의 남·녀 사용공간의 격리와 시선차단을 위한 격담을 묘사

16) 현존하는 ‘마’동과 공간구성이 일치하는 점으로 미루어 같은 건물로의 추정이 가능하다.

17) 재실 또는 향교·서원의 강당류 건물이 이런 평면을 가지는데, 강영환은 이러한 평면 유형을 ‘재실형 별당’이라고 표현하고 있다. (강영환, 새로운 한국주거문화의 역사, 기문당, 2002. p.212)

18) 최수영 외 2인, 전라 구례 오미동가도를 통해 본 운조루의 공간 구성에 관한 연구, 대한건축학회논문집, 2001.11, p.13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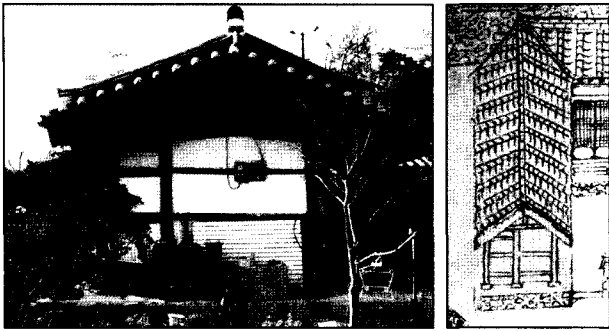


그림 7. '가'동 날개채의 벽면구조 묘사



그림 8. '나'동 외측 침호 묘사

하고 있는 점과 평면도에서는 연지의 옆에 묘사해놓은 건물을 부감도에서는 연지 위편 문간채의 측면에 그려 놓은 점('마'동) 등의 차이점이 보인다. 또한 그림 5의 '다' 건물도 효경당계축문 내의 평면도와 비교하여 조금 다르게 묘사되고 있는데, 그림 '다'의 평면도에서는 전면 모두 퇴칸으로 되어 있으나 부감도에는 전면 4칸이 모두 안채의 대청에서처럼 4분합띠살문을 달고 있는 것으로 그려져 있는데 측면의 구조상으로는 퇴칸을 두기 어려운 모습이다. 이와 같은 차이점은, 평면도는 건축 이전에 그려진 계획 도면이고 부감도는 건축 완료 후 지어진 건물을 보고 그렸기 때문인 것으로 추정되며 실제 건축과정에서 계획이 다소 변경되었던 것으로 볼 수 있다.

III. 「孝敬堂啓築文」과 古宅 現況과의 비교 검토

1. 「孝敬堂啓築文」의 건물 명칭 검토

「효경당계축문」에서는 '사당, 내당, 효경당, 행랑을 축조하고 또 연못의 옆에 고직사를 세웠다'라고 기록되어 있고, 평면도에는 연지와 함께 5동의 건물이 실의 명칭과 함께 주간간격이 비교적 상세하게 그려져 있으며, 부감도에도 평면도와 위치는 약간 다르나 모두 5동의 건물을 그

려 놓았다. 그러나 효경당계축문에 나와 있는 건물 명칭에 대해서 평면도나 부감도에는 언급이 없어, 효경당계축문에 적혀 있는 사당, 내당, 효경당, 행랑 및 고직사의 건물 위치를 다음과 같이 두가지안으로 추정해 보았다.

추정 1안과 추정 2안 모두 '가'동의 ㄷ자형 건물을 내당으로, '라'동의 ㄷ자형 건물을 고직사로, 그리고 '마'동 건물을 창고¹⁹⁾로 보는데는 큰 무리가 없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나'동과 '다'동의 건물 명칭에 대해서는 1안에서는 '나'동을 효경당으로, '다'동을 사당으로 추정하고 2안에서는 '나'동을 행랑으로, '다'동을 효경당(재실, 재실형별당)으로 볼 수 있는데, 그중 건물의 명칭에서 가장 큰 문제가 되는 건물은 '다'동 건물이다.

우선 추정 1안에서처럼 '다'동 건물을 사당으로 추정해 볼 수 있는 근거는, 조선시대 주거건축에서 일반적으로 사당이 가장 높은 위계를 가지고 있을 뿐만 아니라 효경당계축문의 기록에서도 사당이 가장 먼저 언급되어진 만큼 반드시 고택내에 사당이 묘사되었을 것이라고 볼 수 있기 때문이다.

아울러 연못 옆에 고직사를 세웠다는 기록으로 보아 그림 6에서와 같이 고직사로 추정되는 '라'동 건물 좌측편에 안채로 들어가는 대문과는 별도의 문이 설치되어 있어 동측은 제사공간으로 사용하고 서측은 주거공간으로 사용하는 공간 구획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만일 '다'동을 사당으로 추정하면 '나'동 건물을 효경당으로 볼 수 있는데, 효경당계축문의 기록에는 사랑채에 대한 언급은 없지만 양반가에서 사랑채가 없었다고 보기 어렵고, 특히 내당인 '가'동과 '나'동의 사이에 묘사된 격담은 동춘고택 등에서처럼<그림 9> 남·녀간의 공간구분이나 시선차단을 위한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행랑과 사랑채의 용도가 하나의 건물에 수용되었던 것으로 볼 수 있다. 아울러 윤섭이 「효경당계축문」을 기록했다고 하는 남성공간인 효경당은 사랑채의 별칭으로 추정해 볼 수 있다.

그러나 여기서 사당이라 함은 家廟를 의미하는데, 4칸 짜리 가묘의 유례를 찾아보기 힘들고²⁰⁾, 또한 그 위치도

표 1. 건물명칭 추정

	추정 1안	추정 2안
'가'동	내당	내당
'나'동	효경당	행랑
'다'동	사당	효경당(재실)
'라'동	고직사	고직사
'마'동	창고	창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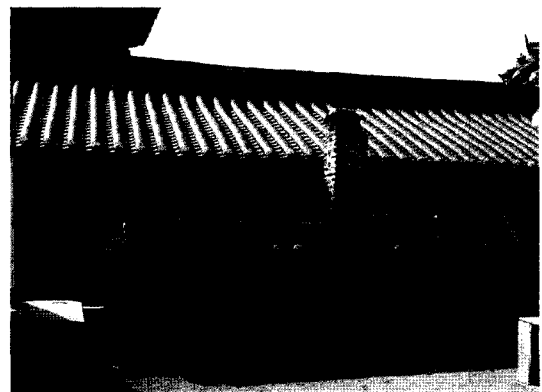


그림 9. 동춘고택의 격담

19) 「효경당계축문」에는 언급되지 않은 건물이다.



그림 10. 주거공간과 제사공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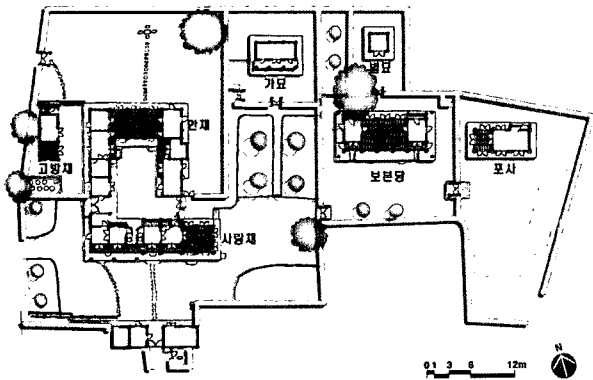


그림 11. 영천 만취당 배치도
(한필원, 한국의 전통마을을 가다 권1, p.5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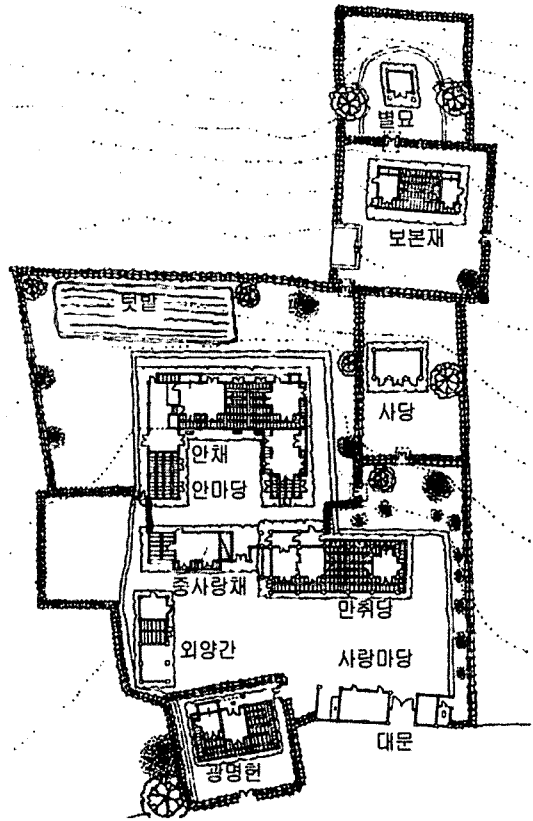


그림 12. 대구 백불고택 배치도
(강영환, 새로쓴 한국주거문화의 역사, p.212)

부감도에 나와 있는 위치보다는 지형상 높은 고택 뒤편에 두는 것이 일반적인 사당의 위치²¹⁾라는 문제점이 있다. 또한 부감도에는 이 건물의 지붕을 팔각지붕으로 묘사해 놓았는데, 대부분의 가묘지붕은 맞배지붕으로 올린다는 점도 사당으로 추정하기 어렵게 하고 있다.

다른 해석은 추정 2안에서처럼 ‘다’동 건물을 효경당으로 추정해 보는 것인데, 이는 계축문의 題號도 「효경당계축문」이고 이 글을 효경당에서 지었다고 기록한 점으로 보아 고택 내에서 효경당의 비중도 크고 그 묘사는 필수적이었다고 생각할 수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남성 공간으로 사용되었을 효경당은 別堂이나 사랑채로 추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조선시대 대전 근교에 건립된 별당건축은 대부분 정면 3칸, 측면 2칸 크기로 잡은 후 정면 3칸

중 2칸은 우물마루를 깔은 대청을 만들고, 그 옆 1칸은 온돌방을 들이는 사례가 대부분이다.²²⁾

그러나 건물 ‘다’는 정면이 4칸으로 구획되어 중앙 2칸 통칸으로 대청을 들이고 그 양편에 온돌방을 대칭적으로 들이고 있어 이 지역의 일반적인 별당평면과는 달리 재실건축²³⁾에서 흔히 사용하고 있는 평면형태로 볼 수 있다.

특히 이에 대해서는 그림 11과 그림 12에서와 같이 고택 안에 지어진 재실형 건물에 대해서 제사를 치르거나 문중의 회의를 위한 재실이 고택과 결합된 형태를 ‘재실형 별당’이라고 정의하면서 영천 만취당과 대구 백불고택의 사례를 제시하기도 하고 있다.²⁴⁾

그러나 「효경당계축문」내의 부감도에서 건물 ‘다’의 위치는 만취당 보본당과 백불고택 보본재의 위치와 유사하지만 두 고택의 경우에는 별묘 앞에 지어진 반면 파평윤씨 고택에는 별묘가 없다는 차이점이 있는데, 파평윤씨 고택은 선대의 묘소 앞에 지어졌으므로 재실의 형태와 용도로 사용되었다 하더라도 무리가 없다고 볼 수 있다.

20) 家禮에선 사당의 크기를 3칸을 기준으로 하고, 필요에 따라 그 이하로 할 수 있다고 적고 있다. 단, 의성김씨 대종가의 사당(가묘)은 4칸인데 한 칸은 불전위를 위해 사용하고 있으므로(김지민, 한국의 유교건축, 발인, 1996, p.191) 사당은 3칸으로 볼 수 있다.

21) 가례에서는 ‘祠堂於正寢之東’ 즉, 사당은 안채의 동쪽이자 대문에서 가장 깊숙한 곳에 둔다고 하고 있다.

22) 동춘당, 쌍청당, 제월당, 송애당, 옥류각 등 대전근교의 별당 건축은 정면 3칸, 측면 2칸의 평면형태가 일반적이다.(이달훈, 조선시대 별당건축의 양식에 관한 연구, 충남대 석사학위논문, 1980)

23) 효경당과 같이 정면을 4칸으로 잡아 중앙에 2칸의 넓은 대청을 두고 그 양 옆으로 온돌방을 들이고 있는 재실건축으로는 인근 지역의 有懷堂(대전시 유형문화재 제6호), 追遠齋(대전시 문화재자료 제33호) 등이 있다.

24) 강영환, 앞의 책, p.212

따라서 부감도 ‘다’의 건물이 효경당일 경우 남성들이 평소 사용하는 별당건물이면서 한편 제사시 재실의 용도로도 사용된 ‘재실형 별당’으로 볼 수 있다.²⁵⁾

또한 이 건물이 재실로 사용된 효경당 건물이었다면 같은 공간 내에 있는 ‘라’ 건물도 고직사의 용도와 위치가 적절할 뿐만 아니라 부모님에게 공경하며 효도한다는 “효경당”²⁶⁾이라는 堂號와도 일치한다고 볼 수 있다.

그리고 「효경당계축문」의 기록에 나와 있는 사당은 아마도 일반적인 사당의 위치나 구획방법상 별도의 구획을 하여 설치하였던 것으로 추정되며, 따라서 효경당계축문이나 부감도에서의 묘사가 제외된 것으로 보여진다.

2. 고택건립에 사용된 기본 尺度

고택의 건립 당시 사용된 기본 척도를 확인해 보기 위해 현재 남아 있는 건물 중 내당의 크기²⁷⁾와 「孝敬堂啓築文」에 기록되어진 크기를 비교해 보았다.

안채 현황 평면도는 대청을 포함하는 부분(이하 X축이라 함)과 날개채 중 부엌을 포함하는 부분(이하 Y축이라 함)을 대상으로 하였다.

「孝敬堂啓築文」에는 X축방향(46척, Y축방향(좌측 날개채) 32척으로 기록되어 있는데, 이 수치와 고택 현황을 비교적 정밀하게 실측한 보수용 도면의 수치와 비교를 해 보면 먼저 X축은 12,710 mm에 46척으로 되어 있어, 자의 크기가 276.30 mm/尺 임을 알 수 있다. 그런데 Y축은 9,940 mm에 32척으로 되어 있어 310.63 mm/尺으로 두 축 간에 차이를 보이고 있다. 또한 X축의 경우 각 실의

표 2. 기본 척도의 비교

구분	현황 (mm)	계축문 (尺)	환산단위	추정			
				크기 (mm)	尺	환산단위	
X	계	13,640	46	296.52	13,640	44	310.00
	방 1	3,400	10	340.00	3,400	11	309.09
	대청1	2,500	9	277.78	2,500	8	312.50
	대청2	2,470	9	274.44	2,470	8	308.75
	대청3	2,470	9	274.44	2,470	8	308.75
	서고/방	2,800	9	311.11	2,800	9	311.11
Y	계	9,940	32	310.63	9,940	32	310.63
	방 1	2,500	8	312.50	2,500	8	312.50
	방 2	2,470	8	308.75	2,470	8	308.75
	부엌1	2,470	8	308.75	2,470	8	308.75
	부엌2	2,500	8	312.50	2,500	8	312.50

기본 단위끼리도 큰 차이를 보이고 있다.

한 건물에 두개의 다른 척도를 사용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하나의 단위를 가늠해보기 위해 비교적 칸 별로 편차가 작은 Y축의 평균단위(310.63)를 X축의 현황에 대입해 역으로 칸수를 추정해 보았다.

‘방 1’은 10척에서 11척으로 1척이 늘어나고, ‘대청’과 ‘고방’은 각각 9척에서 8척으로 1자씩 줄어들어야 한다. 다시 이 척수를 가지고 X축의 단위를 환산해보면 자의 크기는 310.00 mm/尺 으로 Y축과 거의 근사치로 나타난다.

이와 같은 차이점은 고택의 중수과정에서 부재의 축소로 인해 발생한 것 일수도 있지만, 그보다는 효경당계축문의 저자인 윤섬(혹은 도면을 작도한 자)의 건축적인 지식의 부족, 또는 數值 등의 중요성을 간과하였거나 계축문 내의 평면도가 계획도면이기 때문에 시공과정에서 일부 변경되었을 것으로 추정된다.

3. 「효경당계축문」과 고택 현황과의 비교

1) 고택의 전체 배치

「효경당계축문」을 통해 그동안 구전되어 왔던 고택의 전체적인 면모와 없어진 부분을 확인해 볼 수 있는데, 고택의 동남측에 넓은 공지로 남아 있는 부분에 최근까지도 교란된 담장의 흔적들이 부분적으로 남아 있었으나, 1997년의 정비공사와 이후 마을길의 포장공사로 인해 흔적이 모두 없어졌다고 한다.²⁸⁾

2) 안채(내당)

안채는 평면구성에 부분적인 변화가 보이고 있는데, 현재 안방은 2칸의 방으로 나누어져 있으나 「효경당계축문」에는 한칸반 규모의 안방에 반칸 규모의 고방으로 되어 있는 것으로 보인다. 현재 사랑방의 용도로 사용하는 방은 당초 1칸의 서고가 달린 두개의 건넌방으로 구분되었으나, 지금은 사이벽(또는 분합문)을 없애고 하나의 공간으로 사용하고 있다.

28) 거주자의 증언에 의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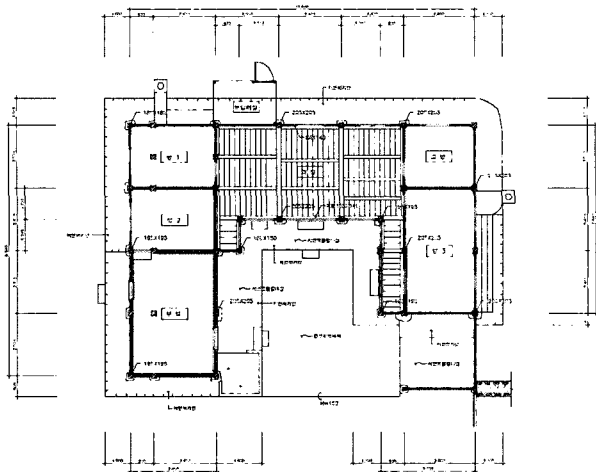


그림 13. 안채 현황 평면도

25) 고택이 재실이라고 구전되는 것도 이 건물 때문인 것으로 추정해 볼 수 있다.

26) 재실의 명칭은 일반적으로 ‘○○齋’로 하나 有懷堂(대전시 유형문화재 제6호), 追遠堂(해남윤씨덕정동과 재실), 永慕堂(전남 민속자료 제28호) 등과 같이 ‘○○堂’으로 하기도 한다.

27) 문화재보수용 현황실측도(서흥기술건축사사무소, 지붕보수용 도면, 서구청, 2006)를 바탕으로 현장에서 필자가 확인실측 하였다.

3) 행랑

행랑의 규모 축소가 화재에 의한 것이라는 증언에서도 알 수 있듯이 대문간과 고방 각 1칸씩이 없어졌다. 따라서 고택 남측편에 있었던 솟을대문 형태의 주 출입구가 소실되자 내당과 행랑 사이의 小門이 주 출입구의 역할을 맡게 되었다. 또한 취사보다는 난방용으로 사용되었을 것으로 추정되는 소문 옆의 鼎廚(부엌)는 난방 방식이 보일러로 바뀌어 집에 따라 그 기능을 상실하고 현재 창고의 용도로 사용되고 있다.

4) 담장과 연치

담장은 내당의 우측과 행랑(사랑) 외측으로는 없었던 담장이 신축된 반면 내당과 행랑(문간채+사랑채) 사이에 있었던 격담이 없어졌는데, 이는 시대가 흐르면서 남·여간의 구분이 유명무실해지자 마당공간의 확보를 위해 없앤 것으로 보여진다.

특히 이 고택 남측편에는 비교적 규모가 클 뿐만 아니라 호안석으로 잘 쌓은 방형의 연못은 관리 소홀로 심하게 퇴락되고 또한 유지관리가 어려워지자 현 거주자가 발로 사용하기 위해 약 30년전에 매웠다고 한다.

③ 행랑-안채 전면에 위치한 ㄴ자형 건물

④ 고직사-효경당 전면의 ㄴ자형 건물

⑤ 사당-부감도내에 묘사되지 않았음

3) 고택의 현황과 「효경당계축문」 평면도에 기록된 척수를 비교한 결과 고택 건립에 사용되었던 기본 척도는 약 310.00 mm/尺인 것으로 추정된다.

3. 「孝敬堂啓築文」에 의한 파평윤씨 서윤공파 고택의 개별 건축물에 대한 원형 고찰 결과는 다음과 같다.

① 내 당-안방 내부 칸 나눔과 고방, 툇마루를 다시 설치하여야 하고, 건넌방 역시 서고가 달린 2칸의 방으로 칸막이가 있었던 것으로 확인 되었다.

② 행 랑-화재로 인해 소슬삼문형의 대문과 고방 1칸이 소실되었고 정주(부엌)는 고방으로 변경되었다.

③ 효경당-정면 4칸, 측면 2칸 규모의 팔작지붕을 올렸으며, 정면 4칸 중 중앙 2칸에는 대청을 두고 그 양편에 1칸씩의 온돌방을 들었다.

④ 고직사-방이 3칸이고 고방이 2칸, 그리고 양 끝에 정주와 측간을 둔 ㄴ자형의 평면이었다.

⑤ 연 못-고택의 남측에 방형의 형태로 적어도 6단 이상의 호안석을 쌓아 만들어졌던 것으로 추정된다.

IV. 결 론

조선중기 주거사에 있어서 중요한 자료로 여겨지는 「孝敬堂啓築文」의 내용과 고택의 현황을 비교·검토 한 결과 다음과 같은 결론을 얻을 수 있었다.

1. 1675년(숙종 원년)에 기록되고 그려진 「孝敬堂啓築文」 및 고택의 평면도와 부감도는 조선중기의 상류주택에 대한 사료가 많지 않은 상황에서 중요한 주거사적 자료로 활용할 수 있다.

2. 상기 자료를 토대로 파평윤씨 서윤공파 고택에서 다음과 같은 사실들을 확인할 수 있었다.

1) 고택은 윤씨가 건축하기 이전부터 이미 건물이 있었고, 적어도 1675년에는 사당, 내당, 효경당, 행랑과 고직사 등 5동의 건물과 연못이 있었다.

2) 고택 현황과 비교하여 계축문 내 부감도의 건물 명칭을 검토하여 보면 다음과 같다.

① 내당-ㄴ자형의 안채

② 효경당-현재 남아 있지 않은 재실형 건물

참 고 문 헌

1. 강영환(2002), 새로쓴 한국주거문화의 역사, 기문당.
2. 김지민(1996), 한국의 유교건축, 발언.
3. 대전광역시사편찬위원회(1995), 대전금석문.
4. 대전광역시사편찬위원회(1994), 대전지명지.
5. 대전서구문화원(2006), 대전광역시 서구사 권2 「서구의 문화」
6. 박익수(1998.2), 구례 윤조루의 주택사 연구, 대한건축학회 논문집.
7. 서흥기술건축사사무소(2006), 파평윤씨서윤공파고택 안채 지붕보수정비 설계도서, 대전광역시 서구.
8. 송인호(1997.9), 옛 그림에서 읽는 건축, 건축문화.
9. 윤섬(1675), 「효경당계축문」.
10. 이달훈(1980), 조선시대 별당 건축의 양식에 관한 연구, 충남대 석사학위논문.
11. 최수영 외 2인(2001.11), 전라 구례 오미동가도를 통해 본 윤조루의 공간구성에 관한 연구, 대한건축학회논문집 계획계 17권 11호, pp.133-140.
12. 한필원(2002), 한국의전통마을을 가다, 북로드.

(接受: 2007. 1. 26)